

스즈짱 드롭킥! 9-3화 -한국어

스즈가 달려드는 파프리카를 역으로 붙잡아 거꾸로 들어올리고는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에? 잠깐...?! 으아악!!"

콰아앙!



"부가아악!!"

매트에 얼굴을 정면으로 쳐박힌 파프리카가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불쌍해보이는 포즈로 엎어져 침묵한다. 혀가 길었던 것 치고 어이없는 최후였다.

'진짜 뭐하러 온거야..!'

....

...

..

한편, 헬즈플레이어 본진. 레드웍은 현재 복도에서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녀석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레~? 아레아레? 워 언니 못본 사이에 얼굴이 멘치가 되버렸네요? 어떻게 된거예요?"

"큭...! 이 년...! 무슨 용무야."

포이즌로즈. 그녀가 재단의 앞잡이인건 물론, 정통파만 고집하는 워으로써는 아이들계라던가 그녀의 경기스타일이라던가 로즈는 워와 상극의 존재였기에 절대 맘에 들리 없었다.

"들었다구요? 그렇게 마리아님의 공무니를 쫓아다녔는데 이젠 눈 밖에 나고 위험하지 않아요?"

역린을 건드려져 머리에 피가 솟은 레드웍이 로즈의 멱살을 벽으로 몰아붙인다.

"이 년! 싸움거는거냐!"

"까악! 너무해요~! 전 워 언니를 걱정해주고 있는것 뿐인데..."

"걱정어~? 그렇다면 나도 충고 하나해주지. 그 따위로 나대다 조만간 같은 꼴 안당하게 조심하는게 좋을거다."

레드윙이 잡고있던 멧살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자리를 떠난다.

"후후, 저 얼굴을 보는것도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겠네~"

얼마 후, 마리아의 집무실에 당도한 로즈가 문을 두드리자 문 너머의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린다.

"들어오세요."

집무실에 들어오면 마리아가 창가에 서서 로즈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걸 본 로즈가 적당히 소파에 걸터앉는다.

"보고는 받았습시다. 마계에서의 로케이션은 순조로웠나보군요."

"네. 지금 마계에서 제 인기는 절호조! 로즈의 팬의 4할 아니 3할만 유입되어도 이 단체의 전성기시절 팬 수까지 손쉽게 복구할 수 있을걸요? 뭐, 마리아씨의 성에 찰진 모르겠지만요!"

"아이돌 팬이라도 팬은 팬입니다. 본체로 돌아와서 콜로세움의 흥행에 대해선 이미 들어 알고 있겠죠?"

"이번엔 지상 로컬이군요. 사무실에도 지상 진출은 처음이라 엄청 기대하고 있다가요. 뭐, 로즈의 아이돌파워라면 낙승!이겠지만요."

"그건 어떨까요. 마냥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어레어레? 어째선가요? 로즈의 귀여움은 마계에서도 톱 레벨이라고요?"

"지상에 올라와 알게된 사실이지만, 이미 이 나라의 프로레슬링은 아이들게도 무시못할 만큼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더군요."

마리아가 창가로부터 돌아서서 로즈와 눈을 맞춘다.

"톱 레벨의 아이돌레슬러는 당신 하나뿐이 아니란거죠."

마리아의 말에 찰나였지만 로즈의 눈 밑 근육이 움찔한다.

"헤에~ 워 언니를 멘치로 만든 그 녀석이군요? 그 아이 귀엽나요?"

"그렇지도 모르죠."

마리아의 집무실에서 나온 로즈.

"후후...! 로즈만한 미소녀, 이 지상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뭐..."

순간 돌연 로즈의 얼굴과 말투가 급변한다.

"재밌군! 이 몸이 지상에 온 이상 아이돌계는 나 한명으로 충분. 그 년 얼굴을 멘치로 다져서 TV에 나올수 없는 몰골로 만들어주지!"

....

...

..

"에취! 에...감기?"

스즈는 교사 내 탈의실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여분의 옷을 취하러 가기 위해, 학원 내의 사람이 없어지는 심야가 될때까지 구교사의 체육관

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카하핫! 뽀뽀이다!"

어째선지 파프리카는 질리지도 않고 체육관에 눌러붙어서 스즈의 비상식량들을 거덜내고 있었다.

"먼저 시작한건 당신이잖아요! 이제 됐어요. 돌아가주세요."

파프리카가 근처의 컵라면을 하나 더 주워 개봉해버린다.

"돌아가!"